

포천문화원 2006년 주요성과

포천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추진

좋은책 읽기 운동 · 학술세미나 · 가족시낭송경연대회

포천문화원은 1986년9월30일 개원하여 지역 고유문화의 개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과 향토사의 조사, 연구 및 사료의 수집, 보존과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 보조 및 보급,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지역문화에 관한 교육활동,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포천문화원은 고문 3명, 자문위원 12명, 원장 1명, 부원장 2명, 감사 2명, 이사 25명, 사무국 3명과 회원 394명이 활동하고 있다.

2006년 3억2천809만원의 예산으로 다양한 문화활동으로 포천시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촉진해온 포천문화원의 주요사업성과를 보도한다. (편집자주)

◆문화학교 운영



포천문화원 (원장 이만구 · 사진)은 16주(4개월) 단위로 문화학교를 개강하고 2006년도에는 제5기, 제6기, 제7기 등 3기에 걸쳐 문화학교를 운영했다.

제원 일원의 문화유적지를 답사하여 우리 지역 문화 유적 발굴 및 관리 개선 방향의 자료로 삼고 입·회원의 자긍심 고취 및 문화 유적의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기도 했다. 이날 참석인원은 입·회원 97명이며 예산은 510만원이 소요됐다.

◆문화체험학교 운영

포천문화원은 포천관내 중학생 7개교 160명을 선발하여 향토문화 전란, 전통예절, 아프리카문화원 및 수목원 체험, 문화유적 답사 실시(문화유산해설사 설명), 경각 식물원 생태체험 등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참가학생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반영했고 답사 소감을 발표하게 하여 이중 8명은 문화인의 밤에 시상한다.

◆포천문화사랑 발간

포천문화원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매 분기마다 포천문화사랑을 발간하고 있다. 매회 1천 200부를 발행하는데 주요내용은 제언문단, 포천탐구, 칼럼, 인물 스케치, 문화탐방, 포천문예, 포천사랑의 글, 문화예술행사 이모저모 등이다.

◆영사초청 문화특강

포천문화원은 6월9일 여성회관 청성홀에서 신봉승 극작가를 초청하여 '역사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는 주제로 우리민족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정신적 근대화의 중요성에 관한 특강을 실시했다. 이 특강으로 지역문화 정체성 확립은 물론 문화인으로 긍지와 자부심 고취, 유관기관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시민 참여 의식 고취와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좋은 책 읽기 운동

포천문화원은 좋은 책 읽기 운동 협의회를 구성하여 년중 좋은 책 읽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추천도서 10권, 중·고 등부 10권, 일반부 10권을 상반기와 하반기 등 2회 선정하여 추천하고 상반기 독후감 모집 및 시상상을 했으며 하반기에는 20일 문화인의 날에 시상한다. 좋은 책 읽기 운동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의 기회는 물론 문화인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지명유래집 발간

포천문화원은 포천 지역의 역사와 선조들의 생활과 그 시대의



포천문화원 다양한 문화사업을 실시해 포천시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역사적인 사실, 변천되어온 언어의 변화, 지역적 표현, 성현들의 발자취 등 지명 유래자료를 수집하여 지명유래집을 발간하여 12월 말경에 배포할 계획이다.

◆특수사업

포천문화원은 특수시책으로 가족 시낭송 경연대회와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가족 시낭송대회는 11월29일 여성회관에서 포천 시민과 관내 기관·단체·동아리에 소속한 사람을 대상으로 가족

단위 2인이상 시낭송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대상1명, 금상1명, 은상1명, 동상1명, 장려상 11명을 시상했다.

학술세미나는 12월1일 대진대학교 대학원 209호실에서 문화원 회원과 기타 지도층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진대학교와 공동으로 주관해 실시했으며 포천 지역의 고유의 역사 및 포천의 인물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韓國의 선비정신 · 50

무슨 물건으로 저 창고를 채울꼬?



리효종 포천시사 대표

상진은 충실하고 성품이 너그 러워 여유가 있었고, 도량이 커서 평생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벼슬에 오르면서부터 살림살이를 모으는 데 신경쓰지 않아 마당에 있는 창고가 필요없을 정도였다. 이윽고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창고가 무너질 지경에 처하자 청지기가 말했다.

“창고의 기둥이 썩어 그대로 두면 허물어 질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창고를 수리해야겠습 니다.”

그러자 상진이 말했다. “수리하는 건 좋다는 내겐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물건으로 저 창고를 채울꼬?”

창고 창고가 무너져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었다.

그의 아들이 과거에 낙제했을 때였다. 당시 과거에서 떨어진 선비들은 한데 모여 술과 먹물을 마시며 떠들썩하게 소리치며 신세를 한탄하곤 했다. 상진은 아 들이 낙제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 를 불러 조용히 타일었다.

“과거를 치르는 사람이 먹물을 마시고 떠들썩하게 노는 것은 함 시 있어왔던 일이다. 그러나 만 일 정도(正道)를 잃는다면 그 폐 단이 점차 비루해질 것이다. 소 소하게 과거에 합격하고 실패한 것에 기뻐하고 슬퍼한다면 훗날 조정에서 서서 대사를 결정할 때 그 분성을 잃게 될 것이다.”

하루는 그의 집에 도둑이 들었 는데 집안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 도둑을 잡았다. 집안 사람들이 도둑을 잡아 대령하자 상진은 도리 어 도둑을 불쌍히 여기며 말했다.

“끓주리고 떨면서 조들리다가 부득이 이런 짓을 저질렀구나!” 그러고는 도둑이 훔친 물건을 도로 내어주며 말했다.

“내가 만약 배고프고 추위에 떨거든 나에게 와서 고할지언정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말라.”

그는 별레나 짐승을 기르다가 도 때가 되면 반드시 놓아주며 말했다.

“자유롭게 살고 싶은 것은 동물이나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그는 관대하고 도량이 커서 평 생 남의 과실을 말한 적이 없었 다.

다리 하나가 짧은 사람이 있었 는데 어떤 사람이 그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사람의 걷는 모습을 보니 한쪽 다리가 짧은 게로군.”

그 말을 들은 상진이 말했다. “그대는 어찌하여 남의 단점을 말하는가. 마땅히 다리 하나가 길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평소 그는 자식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훈계하였다.

“내가 죽은 뒤에 만일 시호(諡號)를 청하려면 반드시 나의 행적 을 기록한 행장(行狀)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특별히 기록할 만한 것은 없다. 다만, 만년에 거 문고 타기를 좋아하여 일근히 취 하면 곧바로 입금의 은혜에 감사 하는 노래 한 곡을 타면서 스스로 즐겼다.”고 하면 될 것이다.”

을 기록한 행장(行狀)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특별히 기록할 만한 것은 없다. 다만, 만년에 거 문고 타기를 좋아하여 일근히 취 하면 곧바로 입금의 은혜에 감사 하는 노래 한 곡을 타면서 스스로 즐겼다.”고 하면 될 것이다.”

상진(尙震) 1493년(성종24) ~ 1564년(명종 19).

본관은 목천(木川)이며 자는 기부(起夫), 호는 송현(松峴)·향일당(嚮日堂)·범허재(泛虛齋)이다. 일찍이 부모를 여고 매부인 하산군(夏山君) 성몽정(成夢井)의 집에서 자랐다. 1516년(중종11) 생원시에 합격 하고, 이어 1519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예문관검열이 되었다.

1533년 대사간이 되었고 이어 부제학 및 형조참판, 경기도 관찰사를 거쳐 1539년 중종의 특명으로 형조판서가 되었는데, 사간 원에서는 전례가 없는 특진이라 하여 탄핵을 받고 한성부좌윤으 로 물러났다가 다시 대사헌이 되었다. 그 후 요직에 기용되었으나 윤원로(尹元老)와 결탁하였다 하여 인종이 즉위한 후 경상도 관찰사로 좌천되었다. 명종이 즉위한 후 문정왕후(文定王后)의 후원으로 병조판서, 우찬성, 이조판서, 우의정, 좌의정 등을 지 냈다.

좌의정 이준경(李浚慶)과 더불어 사람을 등용하고, 성품이 청렴하고 인자하여 신망이 두터웠 다. 시호는 성안(成安)이다.

통일기원 글짓기 시상식

민주평통 포천시협의회 통일의식 고취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포천시 협의회는 12월12일 오후 포천시청 대강당에서 '통일기원 글짓기 대회' 입상에 따른 시상식을 개최 했다.

협의회는 관내 초·중·고 재학생들 을 대상으로 통일에 대한 의욕 고취와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 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산문 창작물을 공모했으며, 현직 등단문인 등 심사위원 6명의 엄정 한 심의를 거쳐 이날 시상식을 거 행했다.

이날 학교특별표창 6개교, 통일 대상 3명, 통일최우수상 5명, 통일 우수상 8명, 장려상 12명, 입선 8명 등 총 6개교 36명이 수상을 했으 며, 대상은 김은수(영중초2), 김태 훈(포천중1), 허수희(동남고1) 학 생 등 3명이 차지했다.

심사위원인 이원용 시인은 심사 평을 통해 장원을 차지한 김태훈 군의 산문 '내가 본 금강산'을 '가정과 연계한 경험을 순박하고 간결하게 표현함으로써 아낌이 없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포천시협의회는 12월12일 오후 포천시청 대강당에서 '통일기원 글짓기 대회' 입상에 따른 시상식을 개최했다.

다'라고 평하는 등, 각 심사평마다 이번 대회가 통일을 되새기는 뜻깊은 계기였음을 공통적으로 시 사했다.

시상식에는 박운국 포천시장과 유용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

의장, 이강립 포천시의회 의장, 최길용 경기도포천교육장이 참석 해 수상학생들을 축하하고 격려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초대 漢詩

祝 龍巖書院 復元(축 용암서원 복원)



鎬峯 楊載昌 포천향교 전교

龍巖書院遂重成(용암서원수중성)

용암서원 복원공사가 드디어 완성되니

現地官民盡力誠(현지관민진력성)

현지의 관민이 힘을 모아 정성을 다하였다.

定礎式場冬柏發(정초식장동백발)

정초식 할때엔 동백꽃이 피었는데

落成宴席黃花明(낙성연석황화명)

낙성(준공)잔치 할 때에는 국화가 만발 했구나.

學文萬代長傳訓(학문만대장전훈)

선생의 학문은 만대까지 교훈으로 전해지고

行蹟千秋永保名(행적천추영보명)

선생의 행적은 천년까지 그 명성이 보존되리라.

自古陝川多巨擘(자고협천다거벽)

예부터 협천 고을엔 큰 인물이 많이 나셨는데

羹膾此日道心淸(갱장차일도심청)

추모하는 마음이 새로워 도심(道心)이 절로 맑아지네.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184)

왕방산 이서방

왕방산 기슭 호명골에는 병풍 바위라는 바위가 있다. 그 위에는 외딴 집 한 채가 있는데 50대의 이서방과 노총각 아들 하나가 살고 있었다.

1940년 대만 하더라도 왕방산 기슭의 땀 나무와 가랑잎은 포천 사람들의 오기만 가정 연료였으며 땀나무를 팔아 생활하는 나무꾼들의 중요한 소득원이기도 하였다.

왕방산 기슭 병풍바위 이서방은 마음씨 착하기로 유명하였으 며 노총각 아들을 장가들여 서울 머느리를 얻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다.

평소 부지런한 이서방은 힘이 장사였으며 일을 잘하여 늘 풍족

한 생활을 하였다. 산방, 가람, 머루, 대래, 여름, 잣 등 다양한 산실과는 이서방에 곡간에 가득 하였으며 평자를 일게 보리, 밀, 귀리, 기장, 조, 수수 등 곡식을 심고 밭 벼를 가꾸는 등 곡식도 풍부하여 부자 부럽지 않았다. 그러나 겨울 한 철은 땀 나무를 장에다 팔아 돈을 마련하고 며느 리 맛을 준비도 잊지 않았다.

포천 읍내 사람들은 이서방을 산신령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 었다. 그 이유는 밤마다 이서방 은 해와 달을 타고 공중을 날아 다니면서 이 산 저 산을 여행하는 가 하면 흰 수염을 길게 휘날리는 산신령들과 장기도 뛰고 바둑도

두드는 소문이 났기 때문이다.

이서방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바둑, 장기도 곧잘 두었으며 특별히 운동을 하지 않았 는데도 힘이 장사였으며 달리기 도 잘 하였으니 신령이라는 소문 이라는 것도 우연은 아니었다. 마음씨도 착하여 땀 나무를 팔 다가 남으면 가난한 독거 노인에게 주는 것을 잊지 않았다. 1947 년 내 고향 포천 읍내에는 '발진 지부스'라는 돌림병이 성행하여 여러 사람이 죽거나 병실에서 신 음하게 되었다. 바빠진 것은 이 서방이었다.

“나물 일곱 접시, 삼색 과일, 그저 정성드린 제물을 준비하고

은 마을 사람들이 정갈하게 목욕 을 하는 것은 물론 온 정성을 다 하여 마을 하수도와 변소(화장 실)를 깨끗이 청소하고 달 뜨는 밤 달님이 높게 뜨면 달님을 향 해 빌어야 합니다.”

읍내 사람들은 이서방의 말대 로 목욕 제하고 청소하는 사람 들이 많았다. 이서방의 왕방산 산 사람다운 정성드린 제사 때문이 었는지 얼마 후 읍내에 돌던 '발 진지부스' 돌림병은 씻은 듯이 사라졌다. 포천 읍내 사람들은 신기 하게 생각하였던 생각이 난다.

왕방산에는 신선이 살았다고 한다. 혹여 왕방산 이서방을 가 리키는 말이 아닌지? 생각되어질 때가 많았다.

최근 경희대 서정범 명예교수 로부터 '무녀들의 꿈 이야기'라 는 저서를 받고 왕방산 이서방 같 은 무녀들도 많았을까? 하는 생 각이 들기도 한다. 태조 이성계가 바라보며 옛 친구를 그리워하 던 산이어서인지 전설도 많다.

필자연락처 02-932-2434